

#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4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130:1-8 .....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 21장 .....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50번 .....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심을 잊지 않고 항상 그분 안에 거하길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저희 안에 이루어져 감에 따라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열매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삶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확장케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약하여지고 쇠퇴해져 가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령님이 교회의 이끄시는 분임을 깨달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 에스겔 18:21-32 .....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 봉 헌(offering) ..... 1장 .....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 찬 송(Hymn) ..... 327장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명과 가정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인적 자원들이 잘 공급되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세계 각국에 이상 기후와 전쟁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적절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좌골신경통 및 빈맥증)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말씀묵상> 에스겔 18:26-32

26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27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28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29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나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30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대로 국문할찌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찌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31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찌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1.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26-30절) 나에게도 혹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2.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입니까?(31-32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그리스도인 가운데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이신칭의’ 사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믿음과 행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행15:9), 사랑을 산출해 내며(갈5:6)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요일5:4).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벧전1:9).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에 관한 오해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평하신 성품을 따라 의인과 악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그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항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마치 주어진 신분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타락하여 그의 죄로 인해 죽게 되고, 악인의 회개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공평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은 영원히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의인도 의를 떠날 수 있고, 반면에 악인도 악을 떠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마음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수반됩니다. 나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며,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